



## 습근평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에게 축전

4일 국가주석 습근평은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이다. 수교 33년간 쌍방은 의식형태와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상호 성취

를 이루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현재 세계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와 지역 정

세의 불확실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와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견지하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하고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고자 한다. / 신화사

## ‘땅부자’ 고금성, 천무의 논 다루는 것이 꿈

— 장춘시 쌍양구 련화촌당지부 서기 고금성, 귀농 창업 꿈과 아름다운 향촌 건설 ‘두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단오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29일, 기자가 장춘시 쌍양구 련화촌을 찾아갔을 때 마을길 양편 논밭에서 이앙기의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일꾼들이 모내기에 한창이었다. 련화촌당지부 서기이며 벼재배 전문호인 올해 57세 나는 고금성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면서 이제 하루 지나면 모내기가 전부 끝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꼭 부러지게 건설하게 잘 자란 벼모를 가리키면서 고금성은 “벼농사를 잘하려면 우선 하우스에서 벼모부터 잘 키워 논으로 내가야 합니다. 다수확의 관건이지요. 키가 너무 커도 안되고 다부지고 안성맞춤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앉고 분얼도 잘되지요. 올해 그 이듬해에는 200 무로 재배면적을 확대했으며 2019년에는 300 무로, 그후에도 면적을 계속 늘여 올해는 470 여무에 달하는 규모화 재배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농사일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가을 한철을 바라보고 일년 동안 자금을 꾸준히 투자해야 했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해 여간 속을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해서 어느 해 봄에는 하우스에서 멀쩡하게 자라던 벼모가 갑자기 병들어 전멸하는 바람에 그해 농사를 망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서 벼모를 구해다가 겨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대면적이라 벼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예상외의 돈도 만만치가 않았지요.” 고금성은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거를 회상했다.

고금성은 현재 나라에서 재배농들에 대한 지지가 커지면서 “저 앞에 보이는 큰 창고 그리고 작은 창고까지 합치면 면적이 2,200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농기계와 가을에 수확한 벼 그리고 종자와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하고

있지요. 건물을 짓느라 100 만원이 들었는데 국가에서 그 절반인 5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기계 구입도 정부 보조가 큼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녹색농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기비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국가의 해농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국가의 농기계 구입 보조 해농정책에 힘입어 지금 고금성의 농장은 트랙터 3대, 지게차 1대, 이앙기 3대, 수확기 3대가 있어 이미 기계화 재배를 실현했다. 거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쌀가공공장까지 지어 자기들 농장에서 수확하는 벼를 가공하는 외에도 대외 가공까지 맡아 주변의 재배호들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벼농사의 수입도 짝짤하게 올리고 있다.

고금성은 2016년 마을에 돌아왔을 때와 지금 벼재배에서 일어난 변화를 크게 실감한다면서 “몇년전부터는 무인기로 시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기계를 동원해 사람이 논밭에 들어가 시비하는 것에 비해 효과와 효율이 몰라 보게 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인건비를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어 ‘아, 이게 바로 현대농업기술의 힘이지!’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고금성은 시장 정보도 제때때에 파악하고 있다. 요즘은 품질과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거기에 맞는 벼종자를 선택하는 데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몇년전까지 재배하던 ‘길평 6호’를 도태시키고 지금은 대신 ‘도화향 2호’를 심고 있다.

2021년부터 련화촌 당지부 서기 그리고 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고금성은 자신의 농장일외에도 마을의 여러가지 일까지 두 어깨에 짊어지 한시도 시름을 놓을 새가 없다. 현재 69세대에 100명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은 조선족이 절반, 대부분 60세 이상 로인들이다. 시내와 거리가 얼마간 떨어져있는 시골이라 로인들이 리발을 한번 하려고 해도 근심부터 앞선다. 고금성은 어르신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시내의 리발관에서 한달에 두번씩 마을에 내려와 로인들의 리발을 해주도록 연계했다. 그 비용은 촌에서 전부 부담하

고 있다. 촌민들의 전기요금과 수도비도 촌에서 절반 정도 부담해주고 있어 농민들에게는 실제적인 혜택이다.

련화촌에는 또 다른 촌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 ‘풍경’이 있는데 바로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로인식당’이다. 목전 쌍양구에는 농촌마을 ‘로인식당’이 련화촌을 포함해 시범으로 2곳 밖에 없다. 고금성은 촌민들을 위해 해당 부문을 뛰어다니며 이 대상을 쟁취해왔다. 마을 로인들은 단돈 5원이면 요리 3가지에 국과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며 촌민들도 10원을 내면 점심 한끼를 맛있게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금성은 장기간 비어있는 농가를 활성화해 농민들의 수입도 올리고 촌의 집체 경제도 취세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올해 정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 지원 정책에 적극 발맞춰 해당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민박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련화촌에서는 이미 19호의 농가와 계약을 체결, 농민들은 고정적인 임대 수입외에도 민박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중 30%를 가질 수 있다. 농민들은 “돈도 벌고 공짜로 집을 보수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야말로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 셈”이라며 기뻐한다. 또한 촌에서는 도시의 아파트관리 방식으로 민박을 관리, 수입의 20%를 벌 수 있어 집체경제 발전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70여무의 논을 다루고 있는 고금성의 장래 목표는 벼 재배면적을 천무까지 늘이는 것이다. 련화촌의 논밭 면적이 1,500 무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귀농 창업 꿈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 논밭 중간으로 곧게 뻗어나간 마을길을 가리키면서 고금성은 “이제 6월 11일부터 시공대가 들어와 아스팔트길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나 아스팔트길이 새롭게 뻗어나가고 논밭의 벼가 무성하게 자라 푸른 비단을 펼칠 때가 되면 넘실대는 벼파도에 논밭의 청개구리 합창 그리고 새들의 노래소리에 마을의 민박집을 찾는 시내 사람들은 전야의 그림같은 경치에 흠뻑 도취될 것입니다.”라고 자랑했다. / 리철수 오건 기자



천무의 논을 다루는 것이 꿈이라는 장춘시 쌍양구 련화촌당지부 서기 고금성

## 전국 첫진! 길림성의 2개 산업 국가급 명단에

일전,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각지의 39개 첫진 전통우세식품 생산지와 지방특색식품 산업 중점 육성 명단을 발표, 길림성의 길림 홍삼제품, 장백산천연광천수 등 2개 중점 육성 대상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길림홍삼제품의 전통우세식품 생산지와 지방특색식품산업 주요 지역 범위에는 길림성의 통화시와 연변주, 백산시가 포함되며 장백산천연광천수는 백산시의 정우현, 무송현, 립강시, 장백현, 강원구, 훈강구와 연변주 안도현이 포함된다.

전통우세식품 생산지와 지방특색식품산업은 우리 나라 식품공업의 중요한 발전 담체이고 관건적인 성장 엔진이다. 우리 나라는 전세계 식품공업 제 1 대국으로서 업종 규모가 약 9조 8,000 억원에 달하고 특색식품 생

산지가 450 여개에 달하며 산업 규모가 2조 5,000 억원을 초과한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중점 육성 명단은 각지 특색식품산업의 발전 기초, 현실 규모, 성장 잠재력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지의 풍토인정, 역사적 축적, 식품관, 문화 전승 등 중요한 요소를 고려 돌본 동시에 소재지 관련 주관부문에서 전개한 사업과 이룩한 성과 고찰에 중시를 돌리고 선정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전통우세식품 생산지와 지방특색식품산업 중점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각지가 당지 실정에 맞게 발전 방향과 육성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하고 ‘백화제방’의 특색식품산업의 발전 구도를 조성할 방침이다. / 중국정부넷

## 길림오동, ‘2025 중국브랜드 500 강’에 입선

최근 아시아브랜드에서 발기 및 주최하고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향향 ‘일대일로’ 총상회 등 권위적 기구에서 연합으로 주관한 ‘제 11기 브랜드 강국 포럼’에서 ‘2025 중국브랜드 500 강’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길림오동이 462위를 차지했다. 이는 ‘길림오동’ 브랜드 실력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중의약 제조 생산 분야에서 강력한 돌파를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길림오동의 전신은 1957년 설립된 국영연변화학공업으로 1981년 길림오동제약공장을 설립하고 1993년 길림오동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제품은 현대중약, 생물화학약, 식물화학약 등이 포함되며 안신보뇌액(安神补脑液), 소아채귀해열복용액(小儿柴桂退热口服液) 등 유명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오래동안 길림오동은 ‘안전, 신뢰, 안심할 수 있는 약’이라는 초심과 사명을 지켜오면서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출처를

엄격히 관리하며 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위험을 엄격히 예방함으로써 제품 품질이 더욱 탁월해지도록 보장했다.

길림오동은 국가 법정 표준보다 높은 기업 내부 통제 표준을 설정하고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수립하여 중의 분야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바 10여년 연속 중국제약공업 100 강 명단에 들고 2024 중국중약연구개발실력 순위 TOP50 중약 순위에서 26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500’에 들었다. 자산 품질 또한 업계 상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오동’ 상표는 1999년 국가공상총국에 의해 중국유명상표로 인정받았고 2014년 ‘길림전통브랜드’로 인정받았으며 2024년에는 ‘중화전통브랜드’ 대렬에 합류하고 연속 18년 동안 세계브랜드실험실에서 발표한 ‘중국에서 가장 가치있는 500대 브랜드’에 입선, 브랜드 가치가 131.94 억원에 달한다. / 인민넷



## 인삼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일전 통화근중예술포럼에서는 ‘인삼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전추천소개 행사를 개최했다. 무형문화유산 수공작품 전시부스에서 관람자들은 짚가공 특수인삼조제품과 인삼만두에 매료되어 발길을 멈추고 구경했다. / 길림일보

## 중국 15세 이상 흡연률 23.2%, 지속적 하락세

2024년 중국 성인 연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률은 23.2%로 2022년 대비 0.9% 포인트 감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의 금연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5월 2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획사와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 38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올해 행사 주제는 ‘담배 유혹을 거부하고 첫 흡연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금연 홍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중의 담배 위험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63.9%가 지난 30일 동안 금연 정보를 접했으며 인터넷에서 금연 정보를 본 비율은 40.1%로 2022년 대비 5.1%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흡연이 폐암, 심장병,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도 8.2% 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대상자의 44.2%가 간접흡연이 폐암, 어린이 폐질환, 성인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7.1%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15세 이상 흡연자의 금연률은 22.6%로 2022년 대비 0.2% 포인트 증가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사회적인 금연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 신화사